

문화광장



홍정호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북유럽 전설의 무기 물리르는 자신을 사용할 주인으로 가장 고결하고 고귀한 자를 선택한다.

관악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제주의 손에 관악이 들려있는 것이다. 관악은 제주에게 자신을 맡긴 것이다. 1973년은 한국관악협회가 창립된 해이다. 같은 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부를 결성한 곳이 제주이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이미 관악을 섬기고 있는 준비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제주

제주관악의 영향력

의 손에 들려 있는 관악의 영향력을 보라. 전 세계를 향해 제주에서 자신의 바른 성장과 존재를 알리고 있다.

자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제주에게 격을 선사하며,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며 그가 가진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 제주와 함께 호흡하고 그의 양분을 나누며 우리를 성장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 제주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선물로 내어 주었다. 관악의 섬 제주, 세계가 인식하고 있는 제주의 이미지이다. 이것이 그에게 선택 받은 제주관악인의 자부심이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공동체성을 지향한다. 함께 호흡하는 법을 알려주며, 도와 줄 때를 알려주며, 기다림을 가르쳐 주며,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노래하는 법을 알려준다. 시작과 과정 그리고 성과를 함께 공유

하며 자신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통해 음악을 이해하고, 나아가 예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통로가 되어주길 희망하고 있다. 사람의 인격성장과 공감과 위로 그리고 창의의 도구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관악인의 자부심 안에는 관악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기대치를 알고 있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과 팀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제주관악의 역사와 함께 전승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관악인의 증명이다.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노년의 관악선배님과의 대화는 전승의 시간이다. 그저 옛날 이야기거나 오랜 시간의 경험을 나누어주는 시간이 아니다. 경험과 연륜은 큰 차이가 있다. 노년임에도 예리함과 통찰력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가진

연륜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어 주신다. 어른과 어른다운 시간을 경험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앞으로 관악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이정표로 자리 잡는다. 이정표는 방향이다. 우리가 어디쯤 왔으며 또한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충성이 쌓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마침내 이르고 싶은 제주도민 모두가 소망하는 시간을 담아내고 싶다. 제주도민으로서,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관악 예술가로서,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기획자로서, 관악동호인으로서 관악이 제주를 통해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자신의 선한 영향력이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 8월은 제주관악의 달이다. 제주도민이여! 그 번영의 현장에 함께 서 있기를 소원하노라.

사설

日 제주 광어 검역강화, 대책 마련 서둘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제주산 광어에까지 미치면서 수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달부터 갑자기 제주 양식 광어 수입량에 대한 검역비율을 20%에서 40%로 강화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쿠도아종에 대한 집중 검역을 우려해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은 일본에서 내놓은 쿠도아종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아 원인을 쿠도아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당초 검역 비율을 20%로 결정할 때도 쿠도아종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등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않아도 제주 광어는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앞선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제주도와 업계로서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광어 생산 중심지임에도 특산물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5월 제주 광어 소비 부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아 원인을 쿠도아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당초 검역 비율을 20%로 결정할 때도 쿠도아종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등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않아도 제주 광어는 소비

열린마당

본격적인 휴가철, 7월 재산세 납부 먼저



문지웅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장마가 거의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다들 휴가 계획도 세우고 분주한 이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금 납부 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과세물건(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와 더불어 금액이 꽤나 큰 세금인 여러 민원 사례들이 있다.

첫번째 사례로 주택이 없는 데도 주택본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본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합한 부분에 대한 과세로 건물

부분에는 건물소유주, 토지 부분에는 토지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고지서상 '토지'라고 표기가 되어 발송된다.

두번째 사례는 주택본이 같은 금액으로 두 번 부과될 때가 있다. 주택본은 20만원 이상이면 7월, 9월에 절반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이 경우엔 7월엔 '1기본', 9월엔 '2기본'이라고 표기가 되어 우편함으로 발송이 된다. 일괄인 경우 7월에 '연납'이라고 적혀서 발송이 되니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여 살펴보길 바란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곧 있으면 8월이 시작되고 재산세 납부기한(7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휴가를 떠나는 이 시기에 우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체납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일파만파'

원지사, 문섬 해양정화활동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수중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섬 일대에서 다이버들과 함께 직접 해양정화활동에 동참.

원 지사는 이날 서귀포항을 방문해 어민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다이버들과 문섬 주변 해상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대비 장치들을 점검하고 수상해양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

원 지사는 "바다 오염에 관한 도민과 언론의 우려가 많다. 이번 기회에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강조.

경찰청 본청 차원의 조사 착수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을 체포할 당시 영상이 유출된데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

2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영상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과정

이 비공식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

제주경찰 관계자는 "영상은 제주경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자에 대한)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문예회관 홈페이지 관리 손났나

○...제주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인 문예회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홈페이지 관리에 뒷걸음질.

29일 도문화진흥원 홈페이지 확인 결과 이번 주말인 8월 초에 시작된 전시 일정이 아예 올라가지 않고 일부 공연 일정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다른 시설과 대조적.

특히 매일 문예회관은 물론 도내 문화공간 행사를 알리는 문화소식지를 만들고 온라인에도 올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누락 사태. 전선회기자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사과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갑룡 청장은 지난 26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해서는 안되는데 진상조사 결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인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었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진상조사위를 발족시키고 제주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화재 참사 등 10가지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불법행위 등에만 채증이 이뤄지도록 '채증 활동규칙' 개정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집회시위 해산시 위험요

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 4가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채증 활동규칙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개선하는 등 조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최종 권고한 35개 사항중 8개 사항을 제외하고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사과한 것이라는 굵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집회·사회에 대한 지적은 빠진 채 경찰 대응 문제를 삼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정권에 따라 달라서는 안됩니다. 인권을 지켜내야 할 경찰력 행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과를 계기로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경찰이 되길 희망합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매장 판매
전화 064-783-8867, 010-5755-886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회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월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